

패션잡지에 나타난 양성이미지의 사회적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I) -의복품목과 장식을 중심으로-

유 흥 식[†] · 황 선 진*

동양대학교 디지털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hanges of Social Meaning of Androgynous Image in Fashion Magazine(I) -Focused Fashion Item and Adornment-

Hong-Sik Yoo[†] and Sun-Jin Hwang*

Full-time Instructor, Dept. of Digital Fashion Design, Dong Y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 Kyun Kwan University*

(2003. 6. 30. 접수 : 2003. 11. 15.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women's fashion with the androgynous image(fashion item, adornment) which has appeared on our specialized fashion magazine from 1986 through 2000. As a result of this study I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masculine image led the market in the first stage of mid 1980 in a men's wear oriented trend that the woman wear masculine style jacket, pants and blouse. In hair style, the short hair of the masculine image was used habitually but the make-up was tend to be made heavily. The ambivalence of the sex was also showed up by expressing the feminine image on the masculine image using the accessories like necklace, earring and bracelet. Second, unlike the first stage, it showed that more and more feminine image was accepted in the second stage of early 1990. The jacket, blouse and pants were rooted as the basic item in women's fashion. The feminine style of long hair and natural make-up with the androgynous image were increased. Third, in the third stage of the late 1990, the fashion items to the comfortable dress of light weight as the life style pursuits the activity and convenience. The feminine image were appeared naturally with a long hair style and natural make-up with the androgynous image. The remarkable features in the fashion accessories were that boots and low shoes were preferred by the increase of the masculine image shoes and the sneakers were seen a lot by the effect of the sports boom.

Key words: androgynous image(양성이미지), femininity(여성성), masculinity(남성성).

I. 서 론

개인의 외모를 지각함에 있어 최초로 인지되는

단서 중의 하나는 성이다. 성 범주에 따른 의복의 형태는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문화에서 성은 일차적으로 의복을 통해 구별된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세기 말 여성

[†] 교신저자 E-mail : hsy018@hanmail.net

교육과 스포츠 참여 기회의 확대, 양 차 세계 대전에 따른 성 역할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여성들의 복장에 간소화, 남성화를 촉진시켰다. 이 시기(1950년대) 국내의 패션환경은 8.15에 이은 6.25사변으로 서구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복식의 서구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요인은 전통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여성단체조직과 여성해방운동으로까지 발전되었다. 1950년대에 특히 유행했던 스타일은 패드를 넣은 높은 어깨의 남성적인 재킷과 타이트 스커트로 이루어진 밀리터리 룩이었다.

1960년대는 4.19혁명과 5.16혁명으로 국내의 복식계는 침체 상태를 이루다가 제2차(1962~1971)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공업화 기반이 조성되어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단행된 시월유신과 같은 사회적 격동과 석유파동은 또 한번의 패션의식의 위축을 가져왔으며 새마을 운동은 공업화, 도시화를 촉진시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적인 스타일이 대두되었다. 특히 1970년대 매스미디어의 보급과 6.25 이후 베이 불 세대들이 1970년대에 이르러 영 과위를 형성하면서 청년문화가 탄생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미니스커트가 절정을 이르는 시기로 미니와 맥시 그리고 판타롱 슈트가 크게 유행하였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행사를 치른 1980년대는 스포츠 붐이 일어 스포츠웨어의 타운화 경향이 현저해졌다. 또한 제5·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80년대 후반에는 소비욕구의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로 패션산업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이 시기의 전반적인 패션경향은 어깨강조와 허리강조의 구축적인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활성화로 개성과 자유로운 감성의 추구, 상반되는 요소들의 혼재와 양면가치의 표출은 복식에서 성의 개념을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사려된다.

지금까지 역사적 사회학 맥락에서 성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은 성이 사회화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지각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Kaiser, 1990)¹⁾. 성과 의복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크게 의복과 성 역할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과(정삼호, 강혜원, 1977; 원미숙, 1983; 최경희, 1984; 이명희, 1993; 김재희, 1994; 유경숙, 1996)²⁻⁷⁾ 성 범주, 유니섹스 그리고 양성이미지의 의복 디자인이나 스타일 등을 문화적 접근으로 다룬 연구들로(강정화, 1993; 손미희, 1996; 정현숙·정홍숙, 1997; 김경옥·금기숙, 1998; 김민자, 1998; 채수진·김혜연, 1999; 이정후·양숙희, 1999; 최현숙, 2000)⁸⁻¹¹⁾ 대

- 1)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pp. 30-55, pp. 252-256.
- 2) 정삼호, 강혜원, "데님(denim)의복을 중심으로 한 여대생의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권 2호(1977), pp. 7-12.
- 3) 원미숙,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 역할과의 관계-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4) 최경희,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 역할 태도와의 관계-유니섹스 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5) 이명희,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 이미지 선호도와 성 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3호(1993), pp. 367-379.
- 6) 김재희, "유행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 남성의 의복태도와 성 역할 태도와의 상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7) 유경숙, "성 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 8) 강정화,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9) 손미희,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 10) 정현숙, 정홍숙,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권(1997), pp. 231-251.
- 11) 김경옥, 금기숙, "현대패션에 나타난 엔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36권(1998), pp. 239-261.

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양성이미지 복식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이 주로 외국의 잡지나 문헌에 나타난 양성이미지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양성이미지 복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양성이미지 복식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나 의류업체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성이미지 복식에 대한 기준과 용어가 연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패션에서 중요한 테마로 다루어지는 양성이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문헌연구는 전통적인 여성성의 변화로 인해 복식에 있어 전통질서의 파괴가 시작된 1900년대부터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분법적 특성이 상실된 2000년대까지를, 실증연구부분에서는 국내에서 패션전문잡지가 발행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로 정하여 우리나라 패션전문잡지에 나타난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어떤 형태로 표출되었는가를 양성이미지의 유형 변화와 의복품목 그리고 양성이미지의 상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백과사전 속에서 양성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서구패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수용되는 양성이미지 복식이 20세기 후반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양성이미지 복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양성이미지 복식을 주관적으로 다루어온 선행연구들과 달리 내용분석이라는 양적 연구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객관적인 접근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우리나라 여성복의 양성이미지 유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2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의복 품목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우리나라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장식-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패션소품-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3-1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3-2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3-3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패션소품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20세기 후반 여성복에 나타난 양성이미지 개념

앤드로지너스의 일반적인 개념은 남성을 의미하는 앤드로스(andro)와 여성을 의미하는 지나케아(gynacca)의 두 성이 혼합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일차원의 양극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개별차원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여성은 여성성(femininity)만을 가지며, 남성은 남성성(masculinity)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던 기존 시각과는 달리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양성이미지 복식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은 양성이미지를 앤드로지너스, 바이섹슈얼, 양성적복식, 듀얼리즘 등으로 사회학적 개념과 생물학적인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요구된다.

이렇듯 다양하게 표현되는 양성이미지의 개념을

- 12)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반미학, 열린 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37권(1998), pp. 103-118.
- 13) 채수진, 김혜연,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43권(1999), pp. 203-224.
- 14) 이정후, 양숙희,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Indeterminacy)," 복식 45권(1999), pp. 178-199.
- 15) 최현숙,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①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 앤드로지너스는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양성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앤드로지너스 록은 우리가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라고 여기는 생물학적 개념이 아닌 Bem(1974)¹⁶⁾의 양성성 정의를 수용하는 사회학적 개념이다.

② 바이섹슈얼리티(bisexuality) : sex를 선천적인 생물학적 개념으로 gender를, 후천적인 사회학적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Butler, 1999)¹⁷⁾ 앤드로지너스는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의 정신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사회학적 개념인 반면, 바이섹슈얼리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생물학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젠더리스(genderless) : 패션에 있어서 남·녀 성의 분체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온 이슈로 젠더리스도 이러한 성에 기초한 패션의 한 흐름이다. 남·녀를 구분하는 방법을 생물학적인 성인 "sex"가 아닌 사회적인 역할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gender"이다.

일반적으로 패션업체에서 사용되는 젠더리스의 의미는 상반되는 성, 패션테마, 색상, 소재, 실루엣 등이 상호작용(interactive)적 발상에 의해 혼합된 양성성, 무 가치성, 무 경계성으로 표현된다.

④ 유니섹스(unisex) : 유니섹스는 의복품목이 성별에 따른 큰 차이가 없어 남·녀에게 공통으로 입혀져 성의 특성이 배제된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는 Bem의 양성성 분류 중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낮은 미분화를 유니섹스로 보며 유니섹스 의복품목의 대표적 예는 정바지, T-셔츠, 운동화 등이다.

⑤ 듀얼리즘(dualism) : 듀얼리즘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신 개념이다(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9)¹⁸⁾. 앤드로지너스 록이 성적인 차원에 근거한 양성이미지라면 듀얼리즘은 성적인 차원뿐만이 아

니라 문화적 범주에 의한 이분법적 측면 즉 과거와 현재, 선과 악, 추와 미, 동양과 서양 등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혼합되어 양면성의 공존을 제시하였다. 이는 가치의 무 경계성, 사고의 무 경계성, 문화의 무 경계성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중성으로 진이되어 대립된 이중성을 만족시켜 줌과 동시에 패션에 있어서 양성의 경계를 허무는 시초가 되었다. 이러한 듀얼리즘은 젠더리스와 앤드로지너스 록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2. 20세기 후반 여성복에 나타난 양성이미지 복식

복식에서 성적 양면가치가 표출되는 현상은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여성들이 노동력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며, 특히 비즈니스와 전문 분야에서 여성들이 능력을 인정받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직장 여성은 성공을 위한 의복(남성복 도입), 그리고 자신의 본래의 성별을 위한 의복(여성복 도입)을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생물학적 성(sex)에서 문화적, 사회적인 성(gender)으로 양면가치를 표출하고 있다. 반면 남성복에 있어서의 성적 양면가치의 표출은 자기표현과 외적 이미지가 본질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20세기 후반 남성들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써 남성복에 있어서의 앤드로지너스 록이 등장한 배경이 되었다.

현대패션에 있어서 양성이미지는 남성성 대 여성성을 제시하는 품목들 또는 표식들을 반대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여성성 표식들은 긴 머리, 목걸이, 팔찌, 손 지갑, 스커트와 드레스 등이며 남성성을 나타내는 표식들은 짧은 머리, 남성 슈트와 셔츠 스타일, 바지, 가죽 점퍼, 넥타이 등을 들 수 있다.

Flugel(1930)¹⁹⁾은 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차림은 상호의존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성복의 약호로는 타이, 모자, 칼라(collar), 코트, 재킷, 바지를, 여성복의 약호로는 하이힐, 개터, 거들, 보석 등을 들고 있

16) S. L. Bem,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2(1974), pp. 155-162.

17) J.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9), pp. 9-10.

18)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복식 문화 (서울: 교문사, 1999), p. 257.

19) J. C. Flu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1930), p. 27.

다. 1970년대의 gliter rocker(David Bowie, Marc Bolan, Lou Ree)들의 패션에서 보여지는 앤드로지너스 룩은 남성들은 여성의 기표인 스커트, 짙은 화장, 긴 머리 그리고 각종 장신구와 패션 소품을 이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 여성들은 남성의 기표인 재킷, 바지, 패션소품(모자, 지팡이, 담배)과 짧은 머리 그리고 이복구벌만을 강조하는 부분화장으로 양성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성이미지의 요소를 이용하여 Lennon (1990)²⁰⁾은 성 역할 변화와 의복과의 관계를 질적 및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여성의 외모 분석에서 남성적으로 판단된 요소들은 두껍고 거친 소재, 각진 선, 블레이저 유형의 재킷이나 코트, 짙은 색상, 어깨 패드, 셔츠 등이며 여성적으로 판단된 요소들은 레이스, 러플, 리본, 길고 부드러운 느낌의 드레스나 스커트, 드레이프성이 좋은 소재, 부드러운 소재 등을 들고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한 내용분석 대상자료는 (1) 영상매체와 신문에 비해 표적이 명확하고 회독률이 높으며 (2) 문자 매체인 동시에 시각 매체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행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전달 계시함으로써 패션의 형성과 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온 패션 전문잡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패션전문잡지의 선정 기준은 (1) 발행연도가 비교적 연속성이 있으며 (2) 발행 부수가 안정적이며 (3) 세계 유행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과 소비자의 가치변화를 반영하여 트렌드(trend)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 (4) 미래에도 패션 전문인과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는 국내의 패션전문잡지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표적 고객과 패션전문잡지로서의 컨셉(concept)이 유사하여 우리나라 여성복 패션의 흐름

을 파악할 수 있는 “멋”과 “ELLE KOREA”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연구 범위는 “멋”은 1986년 1월호부터 1992년 12월호까지, “ELLE KOREA”는 1993년 1월호부터 2000년 12월호까지로 하였다. 표집 방법은 매년 4권씩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집되어 멋의 경우는 총 28권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ELLE KOREA”는 총 32권이 분석대상자료로 선정되었다. 이 두 잡지의 계절적인 편차를 줄이기 위해 봄(3, 4, 5월호), 여름(6, 7, 8월호), 가을(9, 10, 11월호), 겨울(12, 1, 2월호)이 골고루 표본에 선정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상의는 멋 457건, ELLE KOREA 345건 총 802건이며 하의는 멋 406건, ELLE KOREA 312건 총 718건이다.

조사 대상 자료는 이 기간 동안 두 잡지에 나타난 양성이미지의 여성복 확보로서, 그 선택 기준은 전면울 볼 수 있는 칼라사진으로 전체화면에서 신체비율 2/3이상인 사진으로 한정되었다.

2. 분석유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복에 표현된 양성이미지를 내용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유목을 크게 양성이미지 유형, 의복품목, 장식품목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유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류는 앞에서 다루어진 문헌(Flugel, 1930; Lennon, 1990)과 선행연구(이정후·양숙희, 1997; 김경옥·금기숙, 1998; 채수연·김혜연, 1999)²¹⁾, 유태순 외(1999)²²⁾의 패션 코디네이션의 이해, 이경손 외(2000)²³⁾의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분류하였다.

첫째, 양성이미지의 유형은 여성성 <남성성, 여성성> 남성성, 여성성=남성성으로 분류하였다.

1) 양성이미지의 유형 :

① 여성성 <남성성 : 남성적 이미지의 특성이 높

20) S. J. Lennon, "Clothing and Changing Sex Roles: Comparis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8 No. 3(1990), pp. 45-254.

21) 이정후, 양숙희,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에 관한 연구," 복식 35권(1997), pp. 111-134.

22) 유태순 외, *패션 코디네이션의 이해* (서울: 학지사, 1999), pp. 144-190.

23) 이경손, 김희섭,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2000), pp. 166-214.

은 경우

② 여성성 > 남성성 : 여성적 이미지의 특성이 높은 경우

③ 여성성=남성성 :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경우

둘째, 의복품목은 상의와 하의로 분류하였으며 상의는 다시 외의류(outer wear)와 내의류(inner wear)로 분류하였다.

2) 의복품목 :

(2-1) 외의류(outer wear)

① 재킷(jacket), ② 점퍼(jumper), ③ 원피스(one-piece), ④ 코트류(coat), ⑤ 가디건(cardigan), ⑥ 기타(두 품목이상 착용한 경우)

(2-2) 내의류(inner wear)

① 블라우스(blouse), ② 티 셔츠(T-shirt), ③ 스웨터(sweater), ④ 셸(top종류-shell), ⑤ 조끼(vest), ⑥ 기타

(2-3) 하의(bottom)

① 스커트(skirt), ② 바지(pants), ③ 기타

셋째, 장식은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패션소품으로 분류하였다.

3) 장식 :

(3-1) 헤어스타일

① 숏 헤어(short hair), ② 올백 스타일(up style), ③ 단발머리(middle length hair), ④ 펑크 스타일(punk style), ⑤ 긴 머리(long hair), ⑥ 웨이브 머리(wave hair), ⑦ 기타

(3-2) 메이크업

① 전체적으로 짙은 화장, ② 자연스러운 화장, ③ 부분화장(짙은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과 볼연지), ④ 노 메이크업(화장기 없음), ⑤ 기타

(3-3) 패션소품

패션소품을 이용한 양성이미지의 표현은 직접적인 이성의 소품을 이용하거나 더 포괄적인 개념인 귀 뚫기, 피어싱(piercing), 문신 등 영구적 변형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방법보다 강도가

크다.

① 모자, ② 장신구, ③ 소품, ④ 신발, ⑤ 신체장식(문신, 피어싱)

3. 신뢰도 및 분석방법

신뢰도 측정을 위해 첫 1권(21건), ELLE 2권(57건)을 무작위로 표집한 3권(78건)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각 분석 항목에 대한 조사자간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10년 이상 실무 경력과 의상학과 강의 경력 10년 이상인 현직 디자이너 한 명, 5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의상학과 강의 경력 10년 이상의 강사 한 명 그리고 의상학과 출신의 대학원생 1명의 총 3명의 연구자가 같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양성 이미지의 유형, 상의와 하의의 의복품목은 .90~.95,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패션소품의 경우는 .93~.98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내용분석 조사원간의 내용분석항목 결과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방법은 시기별 분석을 위해 편의상 3기로 제1기 : 1986년~1990년, 제2기 : 1991년~1995년, 제3기 : 1996년~2000년으로 묶어 5년 단위로 기술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처리 방법은 표집된 분석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과 χ^2 (Chi-Square)를 실시하였다.

4. 용어정의

본 연구에 사용되는 중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① 양성이미지 복식 : 본 연구에서의 20세기 후반 여성복에 나타난 양성이미지 복식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성 고정관념이 아닌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질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동시에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즉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긍정적으로 결합되어 남성적, 여성적 특성이 공존하는 이미지의 복식을 양성이미지 복식이라 정의하였다.

② 여성성/여성성 복식 : 생물학적으로 여성지향 가치특성이 높은 경우를 여성성이라 하며 여성성 복

식은 음(陰)의 의복특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²⁴⁾.

③ 남성성/남성성 복식 : 생물학적으로 남성지향 가치특성이 높은 경우를 남성성이라 하며 양(陽)의 의복특성이 높은 경우를 남성성 복식이라 한다.

④ 복식 : 복식은 의복과 장신구는 물론 신체적인 속성(얼굴, 몸)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복식은 여성복에 나타난 의복과 장식을 의미한다.

⑤ 의복 : 신체를 감싸는 것을 의미하지만 장신구, 모자, 장갑, 구두와 같은 부속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에 나타난 상의와 하의를 의미한다.

⑥ 장식 : 장식은 미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실용적인 목적 외에 신체를 장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품목이다. 본 연구에서 장식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패션소품을 의미한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1986년부터 2000년까지 패션전문잡지의 화보에 나타난 여성복의 양성이미지 복식을 의복과 장식으로 나누어 시대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1 : 우리나라 여성복의 양성이미지 유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표 1〉은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양성이미지 유형으로 1986년부터 2000년까지의 여성복 화보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비율이 비슷해 각 성의 이미지가 배제된 여성성=남성성(39.4%)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남성적 이미지의 복식(34.2%), 여성적 이미지의 복식(2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시기

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chi^2=21.685$, $df=4$, $p<.01$).

1980년대 중반인 제1기에는 남성적 이미지(41.0%)가 가장 많이 나타나 이 시기의 양성이미지 의복은 여성복이 남성복의 경향을 띠었다. 이러한 결과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전통사회는 문화적 범주가 고정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외모에 정체성이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이후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정체성이 불안정해지면서 문화적 범주에 대한 양면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전에 비즈니스 정장은 남성의복의 상징이었으나 오늘날은 여성들에게도 일상적인 의복품목이 되었다. 그러므로 20세기에 가속화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개인의 정체성을 불안정하게 하여 문화적 범주에 대한 양면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범주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유행을 가져왔다.

1990년대 초반인 제2기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비슷하여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유형인 여성성=남성성 이미지 의복(39.7%)과 여성성 이미지의 의복이 제1기에 비해 증가하였다(27.2%). 1990년대 후반인 제3기에는 제1, 2기에 비해 여성성=남성성 이미지가 현저히 증가하였다(50.0%).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제3기로 가면서 양성적 이미지의 여성복들이 초기처럼 남성복에서 그 이미지를 차용하기보다는 여성복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양성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이미지 표현에서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융합시켜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통합적 이미지로의 전이를 시사한다. 이는 1990년대 이후의 앤드로지너스는 양성의 특징결합이라는 명목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부정하지 않고 융합시키는 것이 앤드로지너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김

24) 의복에서 남향성과 여향성을 음양(陰-陽)의 개념으로 본 사람은 Northrup(1928)으로 음양(陰-陽)은 의상디자인과 외모의 특징을 설명하는 기본이론이다. 양(陽)은 강인함, 딱딱함, 박력 그리고 지구력 등과 같은 남성적인 특징으로 의복에서는 직선적이고 장식(detail, trimming)이 적으며 큰 무늬, 대담한 색상과 강한 대비, 무겁고 거칠고 딱딱한 질감 등을 의미한다. 음(陰)은 섬세함, 부드러움, 온화함, 연약함, 우아함, 예민함 등과 같은 여성적인 특징으로 의복에서는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과 유곽선, 작은 세부적인 장식, 대비가 심하지 않은 밝은 색상, 부드러우며 얇고 하늘하늘한 질감 등을 의미한다(McJimsey (1963), Morton (1964), 제인영, 강혜원, 외상사회심리(개정판) (1996), p. 214-215).

〈표 1〉 양성이미지의 유형

N(%)

연 대 \ 양성이미지	여성성 < 남성성	여성성 > 남성성	여성성 = 남성성	계
제1기(1986-1990)	149 (41.0) < 54.4>	93 (25.6) < 43.9>	121 (33.3) < 38.3>	363 (100.0) < 45.3>
제2기(1991-1995)	79 (33.1) < 28.8>	65 (27.2) < 30.7>	95 (39.7) < 30.1>	239 (100.0) < 29.8>
제3기(1996-2000)	46 (23.0) < 16.8>	54 (27.0) < 25.5>	100 (50.0) < 31.6>	200 (100.0) < 24.9>
계	274 (34.2) <100.0>	212 (26.4) <100.0>	316 (39.4) <100.0>	802 (100.0) <100.0>

$\chi^2=21.685$, $df=4$, $p<.01$, *결측=0.

경옥, 금기숙(199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패션과 외모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증가로 인하여 복식에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많이 표출되고 있었다.

즉 2, 3기의 이러한 결과는 20세기 후반에 전등과 권위에 대한 저항, 자기표현과 감성의 중시 등과 같은 대중들의 욕구와 맞물려 새로운 문화양식으로 출현한 포스트모더니즘이 양성이미지 복식이 변성하게 된 문화적 토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2. 연구문제 2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의복품목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복식에서의 양성이미지는 반대 성의 품목 또는 표식을 차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의복품목이 시기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 시기에 따라 상의와 하의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상의: $\chi^2=111.224$, $df=24$, $p<.01$, 하의: $\chi^2=43.094$, $df=4$, $p<.01$).

〈표 2〉를 살펴보면 제1기의 상의의 외의류에서는 재킷이 47.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코트류(19.6%)와 재킷 대용으로 착용 가능한 겹퍼(6.1%)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정후, 양숙희, 1997; 김경옥, 금기숙, 1998). 내의류에서는 블라우스(11.8%)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하의에서는 바지(51.8%)와 스커트(47.9%)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제1기의 이러한 결과는 재킷과 코트류의 상의에 블라우스 그리고 스커트와 바지가 코디네이션 되는 성에 따른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남성복의 비즈니스 수트의 정장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기의 외의류에서는 재킷(35.0%)이 제1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겹퍼(8.4%)는 약간 증가한 반면, 코트류(6.3%)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내의류에서는 제1기에서처럼 블라우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18.1%) 스웨터(7.6%), 티 셔츠(5.5%), 조끼(5.5%) 그리고 셀(4.2%) 등이 전반적으로 고른 증가를 보임으로 제1기에 비해 내의류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의에서는 바지가 스커트 보다 많이 착용되어 바지가 여성품목의 주류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의 다른 옷과 코디네이션하여 입는 효과를 상승시키는 경쾌한 경의류 지향이나 단품지향의 패션 배경(삼성패션연구소,

〈표 2〉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의복품목

N(%)

연 대	의복품목	외의류(outer wear)					
		코트류	재킷	점퍼	원피스	두 품목 이상 착용한 경우	가디건
제1기(1986~1990)		71 (19.6) < 64.5>	174 (47.9) < 52.7>	22 (6.1) < 38.6>	15 (4.1) < 39.5>	3 (0.8) < 37.5>	11 (3.0) < 64.7>
제2기(1991~1995)		15 (6.3) < 13.6>	83 (35.0) < 25.2>	20 (8.4) < 35.1>	15 (6.3) < 39.5>	2 (0.8) < 25.0>	4 (1.7) < 23.5>
제3기(1996~2000)		24 (12.0) < 21.8>	73 (36.5) < 22.1>	15 (7.5) < 26.3>	8 (4.0) < 21.1>	3 (1.5) < 37.5>	2 (1.0) < 11.8>
계		110 (13.7) <100.0>	330 (41.3) <100.0>	57 (7.1) <100.0>	38 (4.8) <100.0>	8 (1.0) <100.0>	17 (2.1) <100.0>

연 대	의복품목	내의류(inner wear)					
		블라우스	스웨터	티 셔츠	셀	조끼	계
제1기(1986~1990)		43 (11.8) < 41.0>	13 (3.6) < 24.1>	5 (1.4) < 17.9>	1 (0.3) < 3.4>	5 (1.4) < 25.0>	363 (100.0) < 45.5>
제2기(1991~1995)		43 (18.1) < 41.0>	18 (7.6) < 33.3>	13 (5.5) < 46.4>	10 (4.2) < 34.5>	13 (5.5) < 65.0>	237 (100.0) < 29.6>
제3기(1996~2000)		19 (9.5) < 18.1>	23 (11.5) < 42.6>	10 (5.0) < 35.7>	18 (9.0) < 62.1>	2 (1.0) < 10.0>	200 (100.0) < 25.0>
계		105 (13.1) <100.0>	54 (6.8) <100.0>	28 (3.5) <100.0>	29 (3.6) <100.0>	20 (2.5) <100.0>	800 (100.0) <100.0>

 $\chi^2 = 111.224$, $df=24$, $p<.01$, *결측=2.

연 대	의복품목	하의(bottom)			계
		스커트	바지	기타	
제1기(1986~1990)		149 (47.9) < 59.8>	161 (51.8) < 35.5>	1 (0.3) <100.0>	311 (100.0) < 44.2>
제2기(1991~1995)		64 (29.5) < 25.7>	153 (70.5) < 33.8>	0 (0.0) < 0.0>	217 (100.0) < 30.9>
제3기(1996~2000)		36 (20.6) < 14.5>	139 (79.4) < 30.7>	0 (0.0) < 0.0>	175 (100.0) < 24.9>
계		249 (35.4) <100.0>	453 (64.4) <100.0>	1 (0.14) <100.0>	703 (100.0) <100.0>

 $\chi^2=43.094$, $df=4$, $p<.01$, *결측=15.

1994)²⁵과 일치하고 있다. 특히 블라우스는 내의류의 개념에서 외의류의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의류가 상의로 착용됨으로써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의복품목을 자유롭게 코디네이션하는 멀티코디네이션이 1990년대 중반까지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복에서 남성의 전용 품목이었던 조끼의 증가는 1990년대에 와서 남성복에서 쓰리피스 스타일의 증가(권혜옥, 1999)²⁶가 여성복 유행에도 확산된 것과 맥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제3기의 외의류에서는 재킷(36.5%)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내의류에서는 스웨터(11.5%)와 셸(9.0%)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의에서는 바지가 제1, 2기에 비해 79.4%로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기표인 재킷과 바지는 여성복의 양성이미지 표현에 대단히 중요한 의복품목을 시사함과 동시에 바지형태의 정장차림이 여성복 특히 기성복에서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 창출이 용이하여 남·녀 공용으로 착용 가능한 스웨터의 증가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스웨터의 외의류화(outer) 경향으로 나타난 유행이며 최근에는 감각적인 신세대 소비자를 겨냥한 양성이미지 테마의 브랜드들이 대거 출범하면서(FASHION MARKETING, 1997)²⁷ 스웨터는 양성이미지 복식에서 편리함 추구로 인한 편안한 캐주얼(casual)감각으로 착용 가능한 중요한 의복품목이 되어감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유행은 그 사회 안에서 여유소득(discretionary income)이 가장 많은 계층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여유소득이 많은 계층의 사람들은 의복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표현이라는 사회 심리적인 만족을 위하여 구매하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산업화에 따른 중산층의 확대와 여가의 확산은 사람들이 유행에 관하여 생각할 시간과 다양한 상황에서 의복을 입는 사회적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유행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시되었다²⁸. 이

러한 현상은 20세기에 들어와 그 이전의 세기보다 노동시간이 보다 짧아지고, 유급휴가를 주는 경향은 부의 분산 및 높은 고용과 밀접히 연결되어, 사람들은 여행과 스포츠에의 참여 증대, 여가복 등으로 관심이 전환되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즐거움과 색다른 것에 대한 욕구는 유행변화를 가속화 시켰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의복 선택은 신체 보호 수준이 아닌 자기표현의 수준으로 상승되어 유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즉 생활의 윤택, 스키와 그 밖의 스포츠 관련 문화의 확대, 휴가에 따른 장기간의 여행의 빈번 등이 보편화되면서 제1기에서 2, 3기로 가면서 캐주얼한 차림의 유니섹스 복이 남녀 모두에게 착용되었음을 시사한다.

3. 연구문제 3 : 우리나라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장식-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패션소품-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본 절에서는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장식을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그리고 패션소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연구문제 3-1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헤어스타일은 메이크업과 함께 양성이미지의 표현에 대단히 중요하다.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기별로 의미 있는 변화추세를 나타냈다($\chi^2=76.029$, $df=16$, $p<.01$).

〈표 3〉에서 보듯이 숏 헤어, 올백 스타일, 단발머리와 같은 짧은 머리유형은 여성복에서 양성이미지의 표현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제1기에는 숏 헤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30.7%), 그 다음이 단발머리(18.8%), 긴 머리(16.5%), 올백 스타일(14.5%), 펑크(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숏 헤어 스타일은 전형적인

25) 삼성패션연구소, 1995 SPRING & SUMMER FASHION TREND SEMINAR -Promode Trend Manual- (삼성패션연구소, 1994), p. 2.

26) 권혜옥, "한국 현대 남성복 유행에 관한 연구-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잠지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27) 어패럴 유통사, FASHION MARKETING (어패럴 유통사, 1997년 10월), pp. 46-47.

28) M. J. Horn, *The Second Skin*(2nd.) (Boston: Houghton mifflin. 1975), p. 407.

〈표 3〉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헤어스타일 N(%)

연 대 \ 헤어스타일	숏 헤어	올백 스타일	단발머리	핑크 스타일	긴 머리	웨이브 머리	기타	계
제1기(1986~1990년)	93 (30.7) < 44.9>	44 (14.5) < 41.2>	57 (18.8) < 43.5>	13 (4.3) < 86.7>	50 (16.5) < 27.9>	10 (3.3) < 76.9>	36 (11.9) < 64.3>	303 (100.0) < 42.8>
제2기(1991~1995년)	64 (29.8) < 30.9>	21 (9.8) < 19.6>	36 (16.7) < 27.5>	2 (0.9) < 13.3>	70 (32.6) < 39.1>	3 (1.4) < 23.1>	19 (8.8) < 34.0>	215 (100.0) < 30.4>
제3기(1996~2000년)	50 (26.3) < 24.2>	42 (22.1) < 39.3>	38 (20.0) < 29.0>	0 (0.0) < 0.0>	59 (31.4) < 33.0>	0 (0.0) < 0.0>	1 (0.1) < 1.8>	190 (100.0) < 26.8>
계	207 (29.2) <100.0>	107 (15.1) <100.0>	131 (18.5) <100.0>	15 (2.1) <100.0>	179 (25.3) <100.0>	13 (1.8) <100.0>	56 (8.0) <100.0>	708 (100.0) <100.0>

$\chi^2=76.029$, $df=16$, $p<.01$, *결측=94.

남성적인 이미지의 헤어스타일로 1980년대 후반의 양성이미지 복식에서는 남성적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기에는 제1기에 비해 긴 머리(32.6%) 스타일이 증가하였으며, 숏 헤어(29.8%), 단발머리(16.7%) 등의 순으로 제1기와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인 제3기 또한 긴 머리(31.1%), 숏 헤어(26.3%), 올백 스타일(22.1%), 단발머리(2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에는 남성적 이미지의 짧은 머리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1980년대 후반에 보여지고 있던 핑크 스타일과 같은 급진적인 성격의 헤어스타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여성적 이미지의 긴 머리 스타일은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대 이후부터는 세계적인 패션 경향인 로맨티시즘의 부상으로 여성성 강조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사려된다.

2) 연구문제 3-2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사용된 메이크업의 분류는 피부미용분야에서 사용하는 메이크업 유형을 참

고로 분류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시기별로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chi^2=222.874$, $df=12$, $p<.01$).

〈표 4〉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인 제1기에는 전체적으로 짙은 화장(7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스러운 화장도 19.9% 나타났다. 제1기의 이러한 결과는 같은 시기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남성적 이미지의 재킷과 바지를 착용하는 대신 여성성을 상징하는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의복의 남성적 이미지를 여성적인 메이크업으로 절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인 제2기에는 전체적으로 짙은 화장(63.2%)이 감소하는 대신 자연스러운 화장(29.8%)과 부분화장(4.4%)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본래의 얼굴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화장을 하거나 이목구비만을 강조하는 부분화장을 함으로써 메이크업을 통해 남성적 이미지의 의복을 상쇄하려는 경향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0년대 후반인 제3기에는 자연스러운 화장이 75.1%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짙은 화장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즉 양성적 이미지의 여성복에서 화장은 제1기에서 제3기로 가면서 의복의 남성적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짙은 화장 대신 여성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화장이 증가

〈표 4〉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메이크업 N(%)

연 대	메이크업	짙은 메이크업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부분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기타	계
제1기(1986-1990년)	252 (74.8) < 60.1>	67 (19.9) < 23.9>	2 (0.6) < 7.4>	10 (3.0) < 55.6>	6 (1.8) < 42.9>	337 (100.0) < 44.5>	
제2기(1991-1995년)	144 (63.2) < 34.4>	68 (29.8) < 24.3>	10 (4.4) < 37.0>	3 (1.3) < 16.7>	3 (1.3) < 21.4>	228 (100.0) < 30.1>	
제3기(1996-2000년)	23 (11.9) < 5.5>	145 (75.1) < 51.8>	15 (7.8) < 55.6>	5 (2.6) < 27.8 >	5 (2.6) < 35.7>	193 (100.0) < 25.5>	
계	419 (55.3) <100.0>	280 (36.9) <100.0>	27 (3.6) <100.0>	18 (2.4) <100.0>	14 (1.8) <100.0>	758 (100.0) <100.0>	

$\chi^2=222.874$, $df=12$, $p<.01$, *결측=44.

하였다. 그러므로 양성적 이미지의 여성복에서의 화장은 여성적 이미지로 고정관념화 된 짙은 화장 대신 후기로 갈수록 여성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양성적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여성복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인 이슈로 패션에 큰 영향을 주었던 자연주의(naturalism)의 보편화로 인하여 1990년대 초반인 2기와 1990년대 후반

의 3기에 이르러서는 어느 부분도 강조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화장이미지가 양성이미지의 복식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3) 연구문제 3-3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패션소품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패션소품은 의복과 코디네이션 되어 그 의상을

〈표 5〉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패션소품 N(%)

연 대	패션소품	모자	장신구	소품	신발	합계
제1기(1986-1990년)	38 (17.8) < 52.1>	144 (67.6) < 55.0>	34 (16.0) < 54.0>	52 (24.4) < 30.2>	213 (100.0) < 45.6>	
제2기(1991-1995년)	25 (21.6) < 34.2>	74 (63.8) < 28.2>	14 (12.1) < 22.2>	27 (23.3) < 15.7>	116 (100.0) < 24.8>	
제3기(1996-2000년)	10 (7.2) < 13.7>	44 (31.9) < 16.8>	15 (10.9) < 23.8>	93 (67.4) < 54.1>	138 (100.0) < 29.6>	
계	73 (15.6) <100.0>	262 (56.1) <100.0>	63 (13.5) <100.0>	172 (36.8) <100.0>	467 (100.0) <100.0>	

$\chi^2=49.090$, $df=6$, $p<.01$, *결측=335.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아이템이다. 따라서 패션소품은 워드프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성의 요소를 직접 차용한다는 점에서 양성이미지의 표현에 대단히 효과적인 요소이다.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패션소품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시기별로 의미 있는 변화추세를 나타냈다 ($\chi^2=49.090$, $df=6$, $p<.01$).

패션소품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제1기와 제2기에는 여성적 이미지의 장신구(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사용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인 제3기에는 장신구의 사용이 감소한 반면 남성적 이미지의 신발(67.4%)이 현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신발이 그 사람의 성격, 성별, 나이, 직업, 라이프 스타일 등을 가장 쉽게 표현해 줌으로써 보조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보다는 착장의 한 형태로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여성복에 나타난 양성이미지 복식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어떤 형태로 표출되고 변화되었는가를 관련문헌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 패션전문 잡지에 나타난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을 내용 분석함으로써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우리나라 패션전문잡지에 나타난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은 1980년대 중반인 제1기에는 여성이 남성적 이미지의 재킷과 블라우스 그리고 바지를 차용하는 남성복 지향적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헤어스타일은 전반적으로 남성적 이미지인 숏 헤어가 주를 이루나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짙으며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의 패션소품을 이용하여 남성적 이미지의 착장에 여성적인 이미지를 반영하여 성별의 양면성을 나타냈다.

제1기의 이러한 현상들은 1980년대 후반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유사해져 여성들은 남성과의 능력이나 기회가 동등함을 표현하기 위해 외모에 있어서 서구사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여성들도 남성복의 형태를 따른 성공을 위한 의복(dress for success) 형태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1기의 이러한 양성이미지 복식은 여성이 남성의 복식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여 남성 지향적인 유니섹스 모드에 가까운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인 제2기는 제1기와 달리 여성적 이미지를 점차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품목은 재킷과 블라우스 그리고 바지가 여성복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본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헤어스타일에서는 여성적 이미지의 긴 머리, 메이크업에서는 양성적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증가하여 제2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여성적 이미지와 양성적 이미지를 함께 보이고 있다. 즉, 제2기로 들어서면서 양성이미지 복식은 남성과 동등해지기 위해 위계적인 권위나 전통 등에 의해 억눌려 있던 여성적 성향이 남성을 그대로 모방하려던 제1기에 비해 여성적인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여성복에서 개성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성복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고가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복은 여성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상대성의 장점을 도입한 특성 융합으로 양성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인 제3기에 이르러서는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이 양성적 이미지로 변화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성적 이미지의 복식 유형이 형성되었다. 의복품목은 라이프 스타일이 활동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경의류 착용의 편안한 착장으로 변화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여성적 이미지의 긴 머리, 메이크업은 양성적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여성다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패션소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남성적 이미지의 신발류의 증가로 부츠와 단화도 많이 신었으며 스포츠 붐이 일어 운동화도 많이 보였다.

특히 이 시기의 직장여성(career woman)들은 제1기의 성공을 위한 의복을 더 이상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자신의 여성다움을 그대로 표출하는 자연스러운 룩을 수용했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양성 이미지 복식은 특정 성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T·P·O)에 따라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복식에 유연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양성이미지의 여성복도 1980년대 후반의 남성적 이미지에서 1990년대 초반의 여성적 이미지와 양성적 이미지로, 1990년대 후반은 양성적 이미지로 변화하면서 세계의 유행과 흐름을 같이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그동안 서구의 디자이너 중심으로 연구된 엔드로지너스에 대한 선행 연구(강정화, 1993; 손미희, 1996; 정현숙·정홍숙, 1997; 김경옥·금기숙, 1998; 김민자, 1998; 채수진·김혜연, 1999; 이정후·양숙희, 1999; 최현숙, 2000)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내용분석 방법이 복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많은 양을 체계적으로 수량화 시켜주는 장점이 있지만 실증 연구에 사용된 잡지가 패션 전문잡지에 국한되어 양성적 이미지 복식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여성복의 양성이미지에 나타난 디자인 요소를 함께 보았다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패션전문잡지에 나타난 양성이미지의 디자인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양성의 양성이미지 복식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권혜옥(1999). "한국 현대 남성복 유행에 관한 연구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잡지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재희(1994). "유행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 남성의 의복태도와 성 역할 태도와의 상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옥, 금기숙(1998). "현대패션에 나타난 엔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36권.
-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반미학, 열린 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37권.
- 강정화(1993).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미희(1996).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삼성패션연구소(1994). 1995 SPRING & SUMMER FASHION TREND SEMINAR -Promode Trend Manual-. 삼성패션연구소.
- 원미숙(1983).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 역할과의 관계-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 이미지 선호도와 성 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3호.
- 유경숙(1996). "성 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후, 양숙희(1999).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Indeterminacy)." 복식 45권.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1999). 복식 문화. 서울: 교문사.
- 유태순 외(1999). 패션 코디네이션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경순, 김희섭(2000).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 이정후, 양숙희(1997).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에 관한 연구." 복식 35권.
- 어패럴 유통사(1997). FASHION MARKETING. 서울: 어패럴 유통사, 1997년 10월.
- 정현숙, 정홍숙(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권.
- 정삼호, 강혜원(1977). "데님(denim)의복을 중심으로 한 여대생의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권 2호.
- 최경희(1984).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 역할 태도와 의 관계-유니섹스 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수진, 김혜연(1999).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엔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43권.
- 최현숙(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2.
- Butler, J.(1999).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Flugel, J. C.(1930).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 Horn, M. J.(1975). *The Second Skin*(2nd.). Boston: Houghton mifflin.
- Kaiser, S. B.(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Lennon, S. J.(1990). "Clothing and Changing Sex Roles: Comparis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8. No. 3.